

LOCAL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목포,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나선다



진도 '우리학교 영웅들' 소개 6·25참전용사 홍보 배너 설치

진도군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의 출신 학교에 참전유공자들의 사진과 참전 기록을 담은 안내판(홍보 배너)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판 설치의 '우리 학교 영웅들'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에게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일깨우기 위한 '시민참여형 보훈 문화 확산사업'이다.

군은 지역 내 생존 중인 6·25 참전유공자 3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출신학교와 참전 기록을 수집하고, 참전유공자 6명의 출신학교 5곳(진도초·고성초·의신초·석교초·지산초)에 한 달 동안 안내판을 설치해 후배 학생들에게 영웅을 소개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무안 "연꽃축제 구경 오세요" 26~29일 일로 백련지서 개최

무안군은 여름을 알리는 대표 축제인 제28회 무안연꽃축제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무안 일로 화산백련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제는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를 주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체험과 행사가 마련돼 초여름의 낭만을 수놓을 예정이다.

박지현과 예녹의 개막공연(26일)을 시작으로 SUM:ON(썸온) 콘서트(한동근, 순순희, 엔본의일), 대학가요제 리턴즈(구창모, 홍서범, 조갑경), 청춘마이크와 태곤노래자랑(29일) 등 4일간의 알찬 여정과 함께 이색 볼거리인 야간 경관 조명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20여종의 유등과 LED 장미꽃이 환상적인 여름밤을 선물하고, 제17회 황토골 무안 요리 경연대회와 어린이 독서 골든벨 등도 마련된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사회재난 신속 대응...재난상황실 직원 채용·24시 운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태풍 등 중대재해 사전 예방

목포시가 올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전방위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체제 구축과 중대재해 사전 예방, 축제·대규모 행사 안전점검 필수화, 여름철 무더위 쉼터 운영, 기상이변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6명을 신규 채용해 3교대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실시간 현장 대응과 유

기적인 시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담 인력은 재난 유형별 상황 접수, 유관기관 협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초동대응을 전담하며, 지역 안전 역량 강화와 안전 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매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안전 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사업장과 민간위탁 현장까지 포함하는 종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법령 준수, 안전수칙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목포시는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에 나선 가운데 최근 현장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또 올해 전국 규모 행사와 축제 개최를 위해 12회의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87개 안전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축제 개최 전에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에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227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125개의 그늘막, 쿨링포그 2개소, 살수차 2대를 운영

중이다.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또는 시우량 30mm 초과 발생 시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가동되며,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예찰활동과 비상근무에 전념한다.

이와 함께 안전생활, 안심 방문 도시를 위해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분석과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등 최첨단 관제시스템 도입과 범죄 취약 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도 운영 중이며, 재난·사고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문자 전송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65일 시민과 소통하며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 '오감 만족' 섬 밴댕이 축제 마무리

수산물·생태관광 등 동성 "차별화된 축제 문화 지속"

신안군은 최근 전국 최초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생태관광지이자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유명한 증도에서 '제15회 섬 밴댕이 축제'를 관광객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뉴월 밴댕이'라는 속담처럼 6월 제철을 맞은 밴댕이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주제로 한 먹거리 중심의 축제로, 관광객에게는 제철 수산물의 참맛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축제는 증도 우전마을 설레미체험장 일원에서 열렸으며, 1004인분 밴댕이 비빔밥 만들기 및 시식 행사, 밴댕이 초무침·구이 등 다양한 먹거리 판매, 밴댕이 가요제·지역 출신 가수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돌계집이, 카누나 오리배 타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안군은 최근 증도에서 열린 '제15회 섬 밴댕이 축제'를 성공리에 마쳤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돼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오감 만족형 축제로 거듭났다.

또 이번 축제가 열린 설레미체험장(설레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16년 지정돼 커뮤니티센터, 갯벌 체험장, 카누·오리배 체험장 등 다양한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관광객들은 축제와 함께 소금박물관, 쪼뽕아다리, 한반도 해송 숲, 염생식물원 탐방로, 신안해저유물기법비,

드라마 촬영지 화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었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섬 수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실속형 축제가 바로 밴댕이 축제다"며 "청정 생태 환경과 수산 자원을 활용한 신안군만의 차별화된 축제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장세일 영광군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정착 군정 펼칠 것"

장세일 영광군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장세일 영광군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0일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공헌과 희생에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보훈가족 2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장 군수는 고된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오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존경을 표했다.

장세일 군수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 덕분이다"며 "국가유공자를 예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사회적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는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현충일 추념식 거행, 보훈가족 위문 등 각종 보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영광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와 협업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열사 안중근 음악극'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

https://www.instagram.com/hongdorestaurant/

배달의민족 주문가능

싱싱함이 살아있는 맛—

홍도횃집

참돔 / 감성돔 / 농어 / 광어 / 세꼬시

광주 남구 봉선로 19번길 3 | 062-652-0747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시사광남문화재단

유비게 전문